

제54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5. 7. 22. (수) 15:00 ~ 18:00

2. 장 소 : 율곡관 제 1 회의실

3. 참 석 : 이순일 의 장, 이재호 부의장, 김상배 평의원, 김진우 평의원, 신의섭 평의원, 이동렬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한호 평의원

(불참 : 강희진 평의원, 박진훈 평의원, 오동석 평의원, 윤갑희 평의원, 임문채 평의원)

4. 의안

○ 심의 사항

- 학칙 개정 (안)

○ 자문 사항

- 2015학년도 교비회계 및 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

○ 보고 사항

- 아주발전전략 수립 경과 보고

5. 주요 회의결과

가. 심의사항 - 학칙개정 (안)

○ 상정된 학칙개정(안) 중 9조를 제외한 학칙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 제 9조의 국제학부 세부전공의 학위명은 아래와 같이 변경하도록 심의 의결 함.

- 별표5의 '일본학사', '중국학사' 라는 학위명은 너무 협소한 영역을 지칭하고 있어 넓은 학문분야를 나타내는 '공학사', '이학사', '문학사' 등의 일반적 학위명 체계를 벗어나 있음. 이에 학위명을 지역학사(일본학), 지역학사(중국학)으로 변경하도록 심의 의결함.
- 현재 사용 중인 학위명 체계의 일관성에 대해 검토하고, 체계적인 학위명 부여 원칙을 점검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함.

<간서명 란>

의 장



[주요 개정내용]

- 제4조(기구) : 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 산하 연구기관 신설
- 제8조(대학원) : 경영대학원 ERP 전공 신설에 따른 학위명 반영
- 제9조(대학 및 특수학부) : 국제학부 지역연구전공을 실제 운영 중인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지역연구전공과 중국지역연구전공으로 세분화, 사이버보안학과 신설 사항 반영
- 제11조(의료원)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첨단의학연구원, 대외협력실 추가, 연구지원실 삭제
- 제21조(학생정원) : 2017정원조정에 따라 15명 감축 사항 반영
- 제23조의2(계약학과) : 경영대학원 ERP 전공 신설에 따른 계약학과 학위명 반영
- 제50조(학사과정의 졸업요건) : 2015학년도 경영대학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글로벌 지역트랙' 이수 의무 반영하여 졸업 이수학점 조정 및 호번호 조정

자세한 사항은 6차, 하계 임시 교무회의 회의록 참조

나. 자문사항

○ 2015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 보고사항

- 2015.1차 추경예산 기본방향은 수입예산 변동에 따른 지출예산 반영과 2014학년도 결산확정에 따른 이월금 지출 예산 반영이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기부금 확충을 통한 장학사업 확대
 - 국고수입 변동에 따른 지출예산 반영
 - 수입재원 감소 보존 및 지출예산 소요에 따른 기금인출 반영
 - 2014학년도 결산이월금 확정에 따른 이월금 지출예산 반영

[수입]

(단위 : 억원,%)

구분	2015 1차 추경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A-B)	증가비율
총 수입예산	2,496	2,420	76	3.1%
1. 등록금 외 운영수입	2,274	2,286	-12	-0.5%
2. 투자와기타자산수입	134	94	40	42.6%
3. 고정부채수입	0	0	0	0%
4. 미사용전기이월자금	88	40	48	120%

<간서명 란>

의 장



[지출]

(단위 : 억원,%)

구분	2015 1차 추경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A-B)	증가비율
총 지출예산	2,496	2,420	76	3.1%
1. 보수 외 운영비	2,230	2,188	42	1.9%
2. 자산취득	102	82	20	24.4%
3.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20	109	11	10.1%
4. 고정부채지출	11	10	1	10%
5. 예비비	9	7	2	28.6%
6. 미사용차기이월	24	24	0	0%

2) 자문사항 (※자문의견서 참조)

- 교비회계 1차 추경(안)은 법정부담금 집행액 85.2억 원의 74.7%인 63.6억 원만 재단에서 전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법정부담전입금 부족분(85.2억 원의 25.3%) 21.6억 원의 충당을 위해 교비회계 1차 추경(안) 등록금회계에 교원법정부담금 13.7억 원과 직원법정부담금 4.8억 원이 계상됨.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엄격히 구분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법정전입금을 등록금회계로 납부하는 것이 적법 또는 적절한지 감독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필요하면 수정 보완 바람.
- 재단 수익사업체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학년도말에 편성되는 2차 추경예산에는 법정부담전입금이 증액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함. 1차 추경에 법정부담전입금 및 경상비전입금이 적절히 편성되지 못한 것은 법인과 대학본부 사이 또는 대학본부 내 업무수행 시스템의 문제로 보임.
- 장례식장 운영수입과 관련하여 법인은 의료원에 전입금을 정액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음. 본교의 안정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재단전입금 관련 불확실성 제거가 요망됨.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양쪽에 모두 포함되는 지출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 원칙과 예산금액 책정의 근거 및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음. 동일 지출항목을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나눠 예산편성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과 책정 기준은 합리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와 타당한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함.
- 등록금회계의 분리 및 엄격한 관리는 새로운 제도적 변화로,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있어 이를 고려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됨. 교육과 직접 관련된 항

<간서명 란>

의 장



목들에 대한 지출 우선순위를 사전에 정하고, 부족분 총당 원칙과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음. 전입금, 책임운영부서 수입, 적립금 등을 추가적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책임운영부서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됨.

○ 201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 보고사항

- 2015.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1차 추경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A-B)	증가비율
총 수입예산	491,266	499,850	-8,584	-1.7%
1. 의료수입	414,724	423,590	-8,866	-2.1%
2. 의료외수입	31,264	30,065	1,199	4.0%
3. 차입금	13,519	13,000	519	4.0%
4. 기타수입	1,280	1,280	0	0.0%
5. 전기이월자금	30,480	31,915	-1,436	-4.5%

[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1차 추경예산(A)	2015 본예산(B)	증감(A-B)	증가비율
총 지출예산	491,266	499,850	-8,584	-1.7%
1. 의료지출	359,941	364,034	-4,094	-1.1%
2. 의료외지출	15,740	15,224	516	3.4%
3. 고정자산	46,729	41,661	5,068	12.2%
4. 차입금상환	9,610	9,610	0	0.0%
5. 전출금	38,608	40,882	-2,274	-5.6%
6. 예비비등	6,310	6,310	0	0.0%
7. 차기이월자금	14,328	22,129	-7,801	-35.3%

- 본 예산 대비 1차 추경의 수입이 85억 차이가 나는 이유는 메르스(ME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로 인한 입원 및 외래수입, 건강증진센터의 수입 감소 때문임
- 응급실 환자 수 증가에 비해서 처방수입의 증가가 큰 이유는 중증환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일반 환자들에 비해 수술 등의 더 많은 치료가 요구되는 중

<간서명 란>

의 장



증환자들의 특성상 환자당 진료비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과잉진료와는 무관함

- 외상외과 등에서 환자를 보면 볼수록 손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내년부터 수가가 20%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과거처럼 많은 적자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년도분 연구비 지출 5.68억은 임상-기초 중개협동연구비, OH인센티브 연구비 등 때문임
- 명예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20억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계획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어 5.9억 정도의 명예퇴직 급여가 남음
- 임대사업관련 법인 전출금이 증가한 이유는 SC은행의 임대전환 방식(월세 전환)에 따른 임대료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장례식장 수입 중 22억은 기존 장례식장 수입을 고려하여 의대에 지급을 보장하고, 22억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와 의대에 분배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배분 비율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수익의 100%를 지원할 예정임. 다만, 금년 장례식장의 운영가능 월수가 9개월이므로 금년에 의대에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은 17억임
- 교내전출금 1.7억은 보건대학원과 임상치의학대학원의 OH로 학교로 전출되는 금액임
- 의과대학의 특성상 등록금으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비등록금 회계의 지원을 통해 운영함.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 회계의 구분은 등록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으로 등록금 수입 재원은 등록금회계 비용(장학금, 학생지원비, 기초교원 급여)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은 비등록금회계 부속병원전입금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3월 전산사고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오라클의 특정 버전의 버그로 인해 발생했으며, 전산사고 이후 소프트웨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또 별도의 지역에 전산실을 추가로 만들어 화재 침수 등의 상황 발생 시에도 환자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 약 3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금년에 6.6억, 차년도에 28억 정도를 반영할 예정임
- 병원 전산업무는 대우정보시스템에서 대아정보시스템으로 교체되어 운영하고 있고, 교체시 기존 직원을 100% 고용승계 함은 물론, 인력보강으로 새로운 개발 사업 등을 처리하는 대응속도가 빨라졌음.
- 현재 병원의 전산 시스템은 해외 진출시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 이 부분을 개선하

<간서명 란>

의 장



기 위하여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할 예정이다.

2) 자문사항 (※자문의견서 참조)

- 메르스 사태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추정 편성으로 이해됨.
- 전산 시스템 마비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전산장비 증설 예산이 반영된 것을 이해함. 현재 전산 시스템 운용, 관리는 일부 의료원 인력과 대아정보시스템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런 인력 구성과 사업진행 등을 볼 때 현재의 전산관리체계는 관리, 유지, 보수 및 소폭의 개선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병원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등의 큰 틀의 개선을 하는데 있어 현재의 전산관리 체계가 적절한지 의문이 있음.
- 병원 전산 시스템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면 고급인력의 확보 및 국제 표준에 걸맞은 전산 시스템의 도입 등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음. 향후 큰 폭의 병원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의 타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응급실 진료비 단가가 본예산에 비해 11.3%나 증가하였음. 타과 처방, 그중에서도 1인당 진료비가 높은 외상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처방 수입과 환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렇게 보아도 처방수입 증가비가 환자 수 증가비의 3~5배에 달하는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움. 과거에 비해 중증 환자가 증가한 때문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만에 하나 과잉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의과대학의 경우, 자금의 운용과 관리는 의료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산, 결산에 있어서는 교비회계에 포함되어 회계처리 되므로 의과대학의 예, 결산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움. 향후 대학평의원회 자문 시에는 의과대학의 예, 결산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여 제출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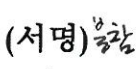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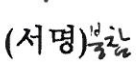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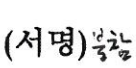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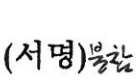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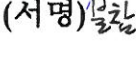
※ 별첨: 자문의견서

<간서명 란>

의 장



2015년 7월 22일

의 장	이순일	(서명) 
부위원장	이재호	(서명) 
평의원	김상배	(서명) 
평의원	한 호	(서명) 
평의원	오동석	(서명) ^{불감} 
평의원	이동렬	(서명) 
평의원	임문채	(서명) ^{불감} 
평의원	신의섭	(서명) 
평의원	박진훈	(서명) ^{불감} 
평의원	강희진	(서명) ^{불감}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서명) ^{불감} 
간 사	김승권	(서명) 